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김 민 지¹⁾

김 선 회²⁾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9개소에 재원 중인 만 4, 5, 6세 유아 173명과 그들 부모이다. 부모를 통해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마음이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편상관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éffe Test,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중 수줍음과 공격성은 마음이론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마음이론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으로는 유아의 수줍음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가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유아기 마음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지도전략 수립 및 실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마음이론

* 이 연구는 2018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이며, 2018년 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kremedy@pusan.ac.kr)

I. 서 론

마음이론(theory of mind)은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것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믿음, 바람, 의도, 지각과 같은 마음현상들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Wellman, 1990). 마음이론은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하게 하므로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마음이론을 잘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며, 놀이 상황에서 또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Astington & Jenkins, 1995). 또한 마음이론은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원활하도록 돕고, 삶의 성공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자들은 마음이론을 기초적인 사회인지 능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마음이론은 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므로 학령 전에 성취해야 할 주요과업 중 하나이다(Wellman, 1990). 선행연구들에서는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실행기능, 언어능력, 인지능력과 같은 유아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혔다(신은수, 2005; 지성애, 김지은, 2016).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유아의 기질과 마음이론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김연수, 곽금주, 2016; Lane et al., 2013; Wellman, Lane, LaBounty, & Olson, 2011).

기질이란 유전학적으로 발생하여 생애초기부터 관찰되는 개인적 특성으로(Rothbart & Bates, 1998), 사회적 경험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개념이다. Derryberry와 Rothbart(1997)는 기질이 각 개인의 독특한 정서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보고 기질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기질과 마음이론의 관계는 Hare와

Tomasello(2005)의 사회-정서적 반응성 가설(the social-emotional reactivity hypothesis)에서 시작된다. 사회-정서적 반응성 가설에 의하면 사람에게 친밀함을 나타내고, 덜 공격적이고 더 수줍어하는 기질적 특성이 사회인지 발달의 개인차를 만들어낸다. 즉 수줍음, 공격적인 기질 특성은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Wellman, Lane, LaBounty와 Olson(2011)은 이 가설에 주목하여 유아의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민감성, 두려움, 주의 집중, 활동수준 등의 여러 기질과 마음이론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음이론과 관련된 기질특성이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임을 밝혔다. 즉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기질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함으로써 마음이론 발달을 저해하는 반면, 수줍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신중하고 관찰하는 경향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성찰하게 하여 마음이론을 발달시킬 수 있다(Lane et al., 2013). 이와 더불어 부모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에 따른 정서를 잘 파악하는 지각적으로 민감한 유아가 마음이론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다(Wellman et al., 2011). 이렇듯 마음이론과 관련을 보이는 기질적 특성으로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이 제시되어왔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Mink, Henning과 Aschersleben(2014)의 연구에서는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 공포 기질과 마음이론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수줍음 기질과의 관련성만 나타났다. 반면 김연수와 곽금주(2016)의 연구에서는 수줍음, 공격성 기질과 마음이론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공통적으로 수줍음 기질은 유아기 마음이론과의 관

련성을 보였으나, 공격성과 지각적 민감성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유아의 기질과 마음이론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기질과 마음이론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기 마음이론이 발달하는 시기인 4세에서 학령전기까지의 아동에게는 여러 환경변인 중에서 가정, 특히 부모요인이 중요하다. Dunn(1988)은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를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도 발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부모를 통해 형성되는 유아의 경험은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elsky & Rovine, 1990).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등의 여러 부모요인들(박가은, 최은실, 2017; 배기조, 최보가, 2002)과 더불어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란 유아의 정서를 사회화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부모의 정서적 행동을 말한다. 유아는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통해 특정한 양식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문화적 규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관리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나아가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정서이해와 사회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며 친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Eisenberg, 2006). Denham, Zoller와 Couchoud(1994)에 의하면 부모는 모델링

(modeling), 반응(reactions), 지도(coaching)의 세 가지 방식으로 유아의 정서를 사회화시킨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자녀에게 모델링을 제공하고, 정서에 대한 반응과 정서지도와 같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학습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로 측정된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며(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정서반응은 자녀의 슬픔, 행복, 두려움, 분노 등의 정서표출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정서지도는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정서를 지각하고 다루는 전략을 알려주는 등 정서적 상황에서 부모가 개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7).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유아로 하여금 정서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이러한 가정환경 안에서 유아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Astington & Gopnik, 1991).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고, 부모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정서표현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을 높였다(Hughes, Deater-Deckard, & Cutting, 1999). 또한 부모의 정서반응 중 지지적 정서반응은 유아의 높은 마음이론 수행능력과, 비지지적 반응은 낮은 마음이론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었다(Mazzone

& Nader-Grosbois, 2016). 부모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지지적이며 수용적일 때 유아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정서와 행동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Dunn, Brown, Sl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부모의 정서지도에서는 부모가 정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때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 수준이 높으며(박가은, 최은실, 2017), 비난과 신체적 처벌과 같은 부정적 방식의 정서지도는 유아의 낮은 마음이론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Hughes et al., 1999) 부모의 정서적 개입이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주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에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각 하위요인들 중 일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이론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각 하위요인이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정서표현에 있어 부와 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훈육적, 처벌적, 스트레스적 반응을 많이 하며, 아버지는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이영환,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것이므로,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와 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마음이론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서은주, 박랑규, 2007; 신은수, 2005; 유소라, 2017; 윤복희, 김희진, 2012; 정덕희, 2009; 정주원, 강민주, 2015; Jenkins & Astington, 2000; Wellman, 1990; Wellman, Cross, & Watson, 2001), 이에 따라 유아의 마음이론과제에서 연령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정서연, 2017; Korucu, Selcuk, & Harma, 2017).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연령에 따른 마음이론의 차이가 나타나지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과 명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통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기질과 부와 모에 따른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하는 개인적 변인과 가정 환경적 변인을 규명하고, 유아의

기질과 부와 모에 따른 정서사회화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아기 마음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도전략 수립 및 실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마음이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9개소에 재원중인 만 4-6세 유아 173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96명(55.5%), 여아 77명(44.5%)이며, 연령은 만 4세 57명(32.9%), 만 5세 53명(30.6%), 만 6세가 63명(36.4%)이었다. 평균 연령은 4세가 54.70개월(연령범위: 50개월~59개월), 5세가 65.18개월(연령범위: 60개월~71개월), 6세가 77.19개월(연령범위: 72개월~83개월)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가 16명(9.2%), 30대가 98명(56.6%), 40대가 58명(33.5%)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99명(57.2%)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20대가 4명(2.3%), 30대가 61명(35.2%), 40대가 99명(57.2%)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78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의 유아기질 척도(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사용하였다. CBQ는 3-7세 아동의 기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평소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근거하여 각 문항을 평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CBQ 척도의 15개 하위요인 중 유아의 마음이론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김연수, 곽금주, 2016; Wellman et al., 2011), 수줍음, 분노/좌절, 그리고 지각적 민감성의 3개 하위요인, 총 37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줍음(13문항)과 지각적 민감성(12문항)은 이혜진(2011)이 번안하였고, 분노/좌절(12문항)은 권연희(2003)가 번안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동학 전공자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분노/좌절 영역을 사용하 이유는 분노/좌절 영역이 공격성 기질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김연수, 곽금주, 2016; Mink, Henning, & Aschersleben, 2014; Wellman et al., 2011). 또한 CBQ 원척도에서는 분노/좌절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한 1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7점)’이며, 영역별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수줍음 .87, 분노/좌절 .87, 지각적 민감성 .78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부모의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 세 가지를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이 개발한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SEFQ)'의 간편형 척도인 Short Form of the SEFQ를 이윤정(2014)이 번안하고 전문가 집단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의 가정 내 정서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표현 12문항, 부정적 정서표현 12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7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해당하는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긍정적 정서표현이 .90, 부정적 정서표현이 .89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보기 위해 Saarni(1989)의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PACES)을 이윤정(2014)이 번안하고 전문가 집단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의 정서적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지로서 총 2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이며, 1점은 매우 수용적인 부모의 반응을 나타내고, 4점은 매우 수용적이지 않은 반응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역채점하여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총점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표현에 따른 부모의 반응이 수용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며, 높을수록 부모의 반응이 수용적임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68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gacé-Séguin과 Coplan(2005)의 Maternal Emotional Styles Questionnaire(MESQ) 중 정서지도영역의 문항을 이윤정(2014)이 번안하고 전문가 집단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 7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는 분노와 슬픔 등 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언어적·행동적 개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개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유아의 마음이론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기 위하여 틀린 믿음 과제(false-belief task)인 내용교체, 위치이동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이차 틀린 믿음 과제(second-order false belief task), 외양-실제 정서 과제(real-apparent emotion task)를 사용하였으며 훈련을 거친 검사자가 평가하였다. 마음이론 검사의 전체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내용교체 과제로는 Perner, Leekam과 Wimmer(1987)가 고안한 Smarties과제를 유소라(201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용교체 과

제는 사탕그림이 그려진 상자에 사탕이 아닌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유아에게 보여준 후, 상자를 닫고 이 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내용이해를 위한 확인질문 2가지를 한 후, 검사질문 2가지를 하였다. 각 검사질문에 대해 유아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1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틀린 반응을 보이면 0점을 준다. 내용교체 과제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2점이다.

위치 이동과제는 Wimmer와 Perner(1983)가 고안한 Maxi 과제를 유소라(201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위치이동 과제는 주인공이 물건을 A위치에 놓고 방을 나간 후 다른 사람이 B위치로 옮겼는데, 주인공이 물건을 가지러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 내용이해를 위한 확인 질문 2가지를 한 후, 주인공이 돌아왔을 때 물건을 어디에서 찾을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검사 질문 2가지를 하였다. 각 검사질문에 대해 유아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1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틀린 반응을 보이면 0점을 준다. 위치이동 과제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2점이다.

이차틀린믿음 과제로 Perner와 Wimmer(1985)가 고안한 과제를 유소라(201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차틀린믿음 과제는 주인공 A가 1차 위치에 물건을 놓고 나간 후, 주인공 B가 2차 위치에 물건을 옮겨 놓는데, 주인공 A가 돌아와서 물건이 2차 위치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나간 후 주인공 B가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유아에게 주인공B가 물건을 어디에서 찾을 거라고 주인공A가 예측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검사질문 2가지를 하였다. 각 검사질문에 대해 유아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1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틀린 반응을 보이면 0점을 준다. 이차틀린믿음 과제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2점이다.

외양-실제 정서 과제는 Harris, Johnson, Hutton, Andrews와 Cooke(1989)가 고안한 과제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남자인형, 여자인형 소품을 사용하여 유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숨기는 상황과 부정적 정서를 숨기는 상황을 들려준 후 내용이해를 위한 확인질문 2가지를 하고, 주인공의 실제 정서와 외부로 표출하는 정서가 어떠한지를 묻는 검사질문 2가지를 하였다. 긍정적 정서를 숨기는 상황에서의 질문 2가지와 부정적 정서를 숨기는 상황에서의 질문 2가지에 모두 응답하면 총 4점을 부여하여 과제를 성공한 것으로 보았다. 과제 수행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4점이다.

3. 자료수집

예비조사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월 25일에서 26일까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1곳을 방문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 전공자 1인과 함께 만 4세 유아 10명, 만 5세 유아 10명, 만 6세 유아 8명 총 2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틀린 믿음 과제(내용교체, 위치이동)와 이차 틀린 믿음과제, 그리고 외양-실체 정서(부정정서, 긍정정서)과제 총 5가지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는 처음 과제를 시작할 때 인형과 소품에 대해 어색하게 느껴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인형과 유아가 “안녕”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을 때 인형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인형과 인사하기를 추가하였다. 소품과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였으므로 수정하지 않았다. 유아 1명당 검사시간은 약 8~12분이 소요되었고, 이를 각 기관에 미리 전달하였다.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부산시에 소재한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8곳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유아 기관에 재원중인 만 4~6세 유아의 부모 300명에게 답임교사를 통해 설문안내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내었고, 설문조사와 자녀의 연구 참여에 동의한 210명의 유아에 한하여 마음이론과제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아동학을 전공하고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연구보조자 1인과 연구자가 함께 수행하였으며,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여 검사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 예비조사 및 논의를 통해 검사절차와 상호작용 등을 최대한 구조화시켜 검사자간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알려주신 자유놀이시간에 방문하여 기관에서 제공한 독립적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1:1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유아 1명당 검사시간은 약 7~15분이 소요되었다. 유아가 낯가림을 많이 하거나 산만할 때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일관하기도 하였고, 이런 경우 유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시 한 번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어 검사시간이 지연되었다. 최종적으로 응답누락 및 불성실한 35부의 설문지와 산만하여 과제를 마치지 못한 2명의 유아를 제외하고 총 173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에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포함하였고, 아버지용 질문지는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측정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봉투에 밀봉하여 선생님을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되었으며, 비밀보장을 위해 봉투째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내적 합치도 점수,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éffe Test, 편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 마음이론의 관계

예비분석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마음이론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마음이론 수준에 차이가 있음

표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마음이론 ($N = 173$)

	내용교체 $M(SD)$	위치이동 $M(SD)$	이차틀린믿음 $M(SD)$	외양-실제 정서 $M(SD)$	마음이론 총점 $M(SD)$
만 4세($n = 57$)	1.28(.79) ^a	1.12(.92) ^a	.77(.94) ^a	1.00(.59) ^a	1.03(.65) ^a
만 5세($n = 53$)	1.75(.58) ^b	1.68(.61) ^b	.91(1.00) ^{ab}	1.43(.70) ^b	1.44(.54) ^b
만 6세($n = 63$)	1.73(.48) ^b	2.00(.00) ^c	1.30(.96) ^b	1.84(.30) ^c	1.74(.32) ^c
F	10.20 ^{***}	29.34 ^{***}	4.87 ^{**}	35.39 ^{***}	27.99 ^{***}
Schéffé Test	$a < b$	$a < b < c$	$a < b$	$a < b < c$	$a < b < c$

^{**} $p < .01$. ^{***} $p < .001$.

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신은수, 2005; 유소라, 2017; 정덕희, 2009; Wellman, 1990; Wellman et al., 2001)과 유아의 마음이론과제에서 연령을 통제한 선행연구들(정서연, 2017; Korucu et al., 2017)에 따라 유아의 연령에 따른 마음이론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éffé Test를 실시하였다. 표 1을 보면, 내용교체($F = 10.20$, $p < .001$), 위치이동($F = 29.34$, $p < .001$), 이차틀린믿음($F = 4.87$, $p < .01$), 외양-실제 정서($F = 35.39$, $p < .001$), 마음이론 총점($F = 27.99$, $p < .001$)에서 모두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면 유아의 마음이론 수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편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 마음이론의 편상관관계

예비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아의 연령을 통제 후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 마음이론의 편상관관계를 표 2에

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아의 수줍음은 마음이론 총점($r = .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공격성은 마음이론 총점($r = -.29$, $p < .0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긍정적 정서표현($r = .28$, $p < .001$), 부정적 정서표현($r = -.37$, $p < .001$), 정서반응($r = .42$, $p < .001$), 정서지도($r = .30$, $p < .001$)는 모두 마음이론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연령을 통제 후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 마음이론의 편상관관계를 표 3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긍정적 정서표현($r = .42$, $p < .001$), 부정적 정서표현($r = -.43$, $p < .001$), 정서반응($r = .44$, $p < .001$), 정서지도($r = .27$, $p < .001$)는 모두 마음이론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의 마음이론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마음이론 총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마음이론 하위 영역에서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

표 2.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 마음이론의 편상관관계 ($N = 17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
내용 교체	.28***	-.10	-.09	.25**	-.05	.24**	.45***
위치 이동	.17*	-.19*	.06	.37***	-.19*	.39***	.27***
이차틀린믿음	.21**	-.33***	.29***	.23**	-.49***	.22**	.05
외양-실제정서	.14	-.23**	-.10	.10	-.30***	.42***	.25**
마음이론총점	.25**	-.29***	.05	.28***	-.37***	.42***	.30***

* $p < .05$. ** $p < .01$. *** $p < .001$.표 3.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 마음이론의 편상관관계 ($N = 173$)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			
	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
내용 교체	.28**	-.10	-.09	.13	-.16*	.30***	.25**
위치 이동	.17*	-.19*	.06	.30***	-.09	.28***	.15*
이차틀린믿음	.21**	-.33***	.29***	.32***	-.38***	.41***	.15*
외양-실제정서	.14	-.23**	-.10	.47***	-.53***	.34***	.28***
마음이론총점	.25**	-.29***	.05	.42***	-.43***	.44***	.27***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유아의 마음이론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각 하위영역은 대체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내용교체와 부정적 정서표현, 이차틀린믿음과 정서지도, 외양-실제정서와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마음이론과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각 하위영역은 대체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내용교체와 긍정적 정서표현, 위치이동과 부정적 정서표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수줍음, 공격성, 지각적 민감성)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상관을 검사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2.57로 수치가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VIF 지수가 1.00~2.08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연령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유아의 기질 하위영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추가되는 설명력은 1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유아의 공격성(β

$= -.22, p < .01$), 수줍음($\beta = .18, p < .01$)의 순서로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유아의 지각적 민감성($\beta = -.02$)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추가되는 설명력은 2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beta = -.34, p < .001$), 어머니의 정서반응($\beta = .33, p < .001$), 유아의 수줍음($\beta = .31, p < .001$), 어머니의 정서지도($\beta = .13, p < .05$) 순서로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beta = .08$)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유아의 공격성($\beta = .14$)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함께 투입되

표 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N = 173$)

		B	β	t	R^2	ΔR^2	F
1단계	연령	.35	.49	7.47***	.24	.24	55.84***
	연령	.36	.51	8.04***			
2단계	수줍음	.10	.18	2.82**	.34	.10	21.91***
	공격성	-.12	-.22	-3.43**			
	지각적 민감성	-.02	-.02	-.39			
	연령	.35	.49	8.97***			
3단계	수줍음	.19	.31	5.61***	.56	.22	26.26***
	공격성	.08	.14	1.95			
	지각적 민감성	-.03	-.04	-.72			
	긍정적 정서표현	.06	.08	1.35			
	부정적 정서표현	-.19	-.34	-4.73***			
	정서반응	.78	.33	5.66***			
	정서지도	.14	.13	1.98*			
	연령	.35	.49	8.97***			

* $p < .05$. ** $p < .01$. *** $p < .001$.

있을 때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유아의 수줍음 기질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그리고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상관을 검사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2.14

로 수치가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VIF 지수가 1.00~1.80으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연령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유아의 기질 하위영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추가되는 설명력은 1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유아의 공격성($\beta = -.22, p < .01$), 수줍음($\beta = .18, p < .01$)의 순서로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유아의 지각적 민감성($\beta = -.02$)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에서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추가되는 설명력은 24%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표 5.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N = 173$)

		B	β	t	R^2	ΔR^2	F
1단계	연령	.35	.49	7.47***	.24	.24	55.84***
	연령	.36	.51	8.04***			
2단계	수줍음	.10	.18	2.82**	.34	.10	21.91***
	공격성	-.12	-.22	-3.43**			
	지각적 민감성	-.02	-.02	-.39			
	연령	.34	.47	9.03***			
3단계	수줍음	.12	.21	4.07***			
	공격성	-.03	-.06	-.99			
	지각적 민감성	-.06	-.08	-1.41	.58	.24	28.39***
	긍정적 정서표현	.16	.27	4.77***			
	부정적 정서표현	-.09	-.16	-2.46*			
	정서반응	.48	.28	4.84***			
	정서지도	.01	.01	.31			
	연령	.34	.47	9.03***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아버지의 정서반응($\beta = .28, p < .001$),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beta = .27, p < .001$), 유아의 수줍음($\beta = .21, p < .001$),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beta = -.16, p < .05$) 순서로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서지도($\beta = .01$)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유아의 공격성($\beta = -.06$)은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유아의 수줍음 기질 수준이 높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함과 동시에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또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마음이론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따른 정서사회화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아기 마음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지도전략 수립 및 실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보면 첫째, 유아의 마음이론과 관련 있는 기질은 수줍음, 공격성

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음이 높고 공격성 기질이 낮은 유아는 마음이론과제를 잘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선행연구들(김연수, 박금주, 2016; Lane et al., 2013; Wellman et al., 2011)과 일치한다. 수줍음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관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기질 특성이 사회인지 능력인 마음이론과 관계가 나타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수줍음 기질의 긍정적 특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덜 공격적인 유아는 마음이론 수준이 높았으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쉽게 표현하는 공격성 기질이 높은 유아는 마음이론과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유아는 분노, 짜증을 표출함으로써 또래나 교사,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최지영, 김미애, 2010)를 보였으며, 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이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힘들게 된다는 연구결과(김연수, 박금주, 2016)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공격적 성향이 낮은 유아는 사회적 관계에서 쉽게 수용됨으로써 타인의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마음이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특정한 기질, 즉 사람에게 덜 공격적이고 수줍어하는 기질이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사회-정서적 반응성 가설(Hare & Tomasello, 2005)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독일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Mink 등(2014)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 기질과 마음이론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이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Mink 등(2014)은 공격성 기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분노만을 다루었으며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과 같은 공격성의 다른 측면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였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공격성과 마음이론 간 관계를 보인 김연수와 곽금주(201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을 언급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므로 우리나라 부모는 유아의 짜증, 화에 대하여 유심히 관찰하여 공격성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독일의 부모는 같은 수준의 공격성에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Lane 등(2013)의 미국과 중국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측정된 공격성과 마음이론 간 관계가 특히 중국 유아에게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도 Mink 등(2014)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음에도 공격성이 마음이론을 예측한 것으로 보아, 공격성을 보는 시각에 대한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공격성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마음이론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가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며, 유아의 정서에 대해 수용적으로 반응하고, 정서지도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표현할 때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Mazzone & Nader-Grosbois, 2016; Ruffman, Perner, & Parkin, 1999)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유아기 마음이론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가정 내에서 보이는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와 같은 정서사회화 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공격성 기질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이는 유아의 마음이론에 공격성 기질보다는 수줍음,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와 아버지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과 정서반응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수줍음 기질은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수줍음 기질과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연수, 곽금주, 2016; 이정현, 2016; Lane et al., 2013; Mink et al., 2014; Wellman et al., 2011). 유아의 수줍음과 관련한 일부 연구에서는 수줍음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제시키고 이는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Bohlin, Hagekull, & Rydell, 2000), 최근 유아의 수줍음과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서는 수줍음 기질이 재조명되고 있다. Wellman 등(2011)에 의하면 수줍음 기질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유아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성급히 참여하지 않으며 바라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줍음은 타인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마음이론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으로는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가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으로는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이 확인되었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정서반응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등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고, 부모가 감정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등 낮은 수용을 보일수록 마음이론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유아의 정서에 대해 지지하며 수용적으로 반응할 때 마음이론이 발달하며,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통제를 많이 할 때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낮았다는 선행연구(Mazzone & Nader-Grosbois, 2016)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친구와 갈등하는 등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유아의 정서를 수용하여 반응할 때 유아의 마음이론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Farrant, Devine, Maybery, & Fletcher, 2012; Ruffman et al., 1999). Pears와 Moses(2003)는 부모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고 이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대신, 정서표현에 대해 벌이나 타임아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통제하는 경우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에 대해 수용

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정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도록 돕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이론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부모가 화, 경멸, 실망감을 표현하고 언쟁을 벌이는 등 가정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낮아짐을 뜻한다. 이는 부모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는 부모를 관찰하여 정서표현을 모델링하고(Dunn & Brown, 1994), 이러한 모델링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마음이론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LaBounty, Wellman, Olson, Lagattuta, & Liu, 2008)을 지지한다. 또한 우울감을 느끼는 부모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유아기 자녀는 정서인지와 이해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연구(Hughes & Ensor, 2009)와 유사하다.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적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았으며(Gotlib & Goodman, 1999) 이러한 특성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Ensor, Spencer, & Hughes, 2011). 이렇듯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가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유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마음이론을 획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존경, 칭찬, 감사,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는 아버지의 정서 표현을 모델링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주었으며(Hughes et al., 1999), 아버지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하순덕, 2014)과 사회적 유능성(조성화, 2011), 읽기와 쓰기 능력(Konishi, Froyen, Skibbe, & Bowles, 2018)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할 때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며 가족원들에게 지지적인 태도를 갖게 되므로(Halberstadt et al., 1995) 이는 유아기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중요성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표현의 영향력이 아버지에게만 나타난 것은 Denham, Bassett과 Wyatt(2010)가 언급한 내용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주로 ‘좋은 놀이친구(playing playmates)’ 역할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사회화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는 놀이친구로서 어머니보다 행복,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서지도는 어머니에게서만 영향력이 나타났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낼 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 어머니의 정서지도 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감정에 대해 경험해 볼 가치가 있음을 인지할 때 유아의 정서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신주혜, 정윤경, 2016), 정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지도할 때 유아의 마음이론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Gottman et al., 1996)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와 정서에 대해 세심한 대화를 나눌 때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Bergen, Salmon, Dadds, & Allen, 2009) 높은 마음이론 수준을 보인다(Ontai & Thompson, 2008). 또한 가족 안에서 다양한 정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아는 감정이나 상황을 더 잘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Dunn et al., 1991). 이러한 정서지도의 영향력이 어머니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주로 어머니가 유아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정서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Gottman et al., 1996)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마음이론이 분명한 관계가 있으며(Hughes et al., 1999), 가족 경험이 유아기 마음이론 발달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힌 연구들(Cutting & Dunn, 1999; Holmes, Black, & Miller, 1996)과 맥락이 같다. 따라서 유아기 마음이론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하며 부정

적 정서표현을 지양하고, 유아가 보이는 다양한 정서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수용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의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마음이론과 관련된 변인으로 유아의 언어능력, 실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진행되지 않은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인지발달영역 외에도 정서적 영역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마음이론 측정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차, 이차 틀린 믿음과제와 더불어 외양-실제 정서과제를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마음이론을 기존의 연구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함께 알아보고, 부와 모에 따른 정서사회화 행동의 차이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기의 마음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지도전략 수립 및 실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주관적 지각이 반영될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을 질문지로 작성하거나 이와 더불어 유아를 직접 관찰·면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마음이론과 관련된 공변인으로 연령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실행기능, 언어능력 또한 유아의 마음이론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Harris, Rosnay, & Pons, 2005; Hughes & Ensor,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과 언어능력을 통제하여 측정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특히 부모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Seçer & Karabulut, 2016)에 따라 이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성별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수, 박금주 (2016).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마음이론 간 관련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탐색. *인간발달연구*, 23(1), 21-35.
- 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2), 123-144.
- 박가은, 최은실 (2017). 어머니의 대화 방식과 아동의 수줍음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마음읽기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1(2), 1-17.
- 배기조, 최보가 (2002). 유아의 마음의 이론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2

- (2), 195-216.
- 서은주, 박랑규 (2007). 마음이론과 실행기능 발달과의 관계: 연령차를 중심으로. *놀이 치료연구*, 10(1), 73-87.
- 신은수 (2005). 3, 4, 5세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 가장놀이, 언어의 표상능력, 실행기능 그리고 중앙통합 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65-90.
- 신주혜, 정윤경 (2016).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2), 21-42.
- 유소라 (2017). 영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양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복희, 김희진 (2012). 유아의 조망수용, 마음이론, 교수의도인식, 교수학습반응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1), 275-298.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적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이영환 (2010).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정서사회화의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63, 1-25.
- 이윤정 (201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11).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현 (2016).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희 (2009). 4, 5세 유아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3), 31-50.
- 정서연 (2017). 유아의 이차순위 마음이론과 실행기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원, 강민주 (2015). 유아의 마음이론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285-308.
- 조성화 (201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아버지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김지은 (2016). 유아의 정서실행기능과 인지처리능력, 자기조절능력 및 마음이론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0(2), 223-247.
- 최지영, 김미애 (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 하순덕 (201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Theoretical explanations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min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1), 7-31.
- Astington, J. W., & Jenkins, J. M. (1995).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social understanding. *Cognition & Emotion*, 9(2-3), 151-165.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9.
- Bergen, P. V., Salmon, K., Dadds, M. R., & Allen, J. (2009). The effect of mother training in emotion-rich, elaborative reminiscing on children's shared recall and emotion knowledge.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0(3), 162-187.
- Bohlin, G., Hagekull, B., & Rydell, A. M. (2000). Attachment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9(1), 24-39.
- Cutting, A., & Dunn, J. (1999). Theory of mind, emotion understanding, language, and family background: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4), 853-865.
- Denham, S. A., Bassett, H. H., & Wyatt, T. M. (2010).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0(128), 29-49.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33-652.
- Dunn, J. (1988). *The beginnings for social understand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 Dunn, J., Brown, J., Slomkowski, C., Tesla, C., & Youngblade, L. (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2(6), 1352-1366.
- Eisenberg, Z. W. (2005). *From now to then: Parents and children talk about the past and the futur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 Ensor, R., Spencer, D., & Hughes, C. (2011). 'You feel sad?' Emotion understanding mediates effects of verbal ability and mother-child mutuality on prosocial behaviors: Findings from 2 years to 4 years. *Social Development*, 20(1), 93-110.
- Farrant, B. M., Devine, T. A. J., Maybery, M. T., & Fletcher, J. (2012).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behaviour: The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2), 175-188.
- Gotlib, I. H., & Goodman, S. H. (1999). Children of parents with depression. In W. K. Silverman & T. H. Ollendick (Eds.), *Developmental issues in the clinical treatment of children*, (pp. 415-432). Boston, MA: Allyn & Bacon.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re, B., & Tomasello, M. (2005). Human-like social skills in dog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9), 439-444.
- Harris, P. L., Johnson, C. N., Hutton, D., Andrews, G., & Cooke, T. (1989). Young children's theory of mind and emotion. *Cognition & Emotion*, 3(4), 379-400.
- Harris, P. L., Rosnay, M., & Pons, F. (2005). Language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mental stat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69-73.
- Holmes, H. A., Black, C., & Miller, S. A. (1996). A cross-task comparison of false belief understanding in a Head Start pop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3(2), 263-285.
- Hughes, C., Deater-Deckard, K., & Cutting, A. L. (1999). 'Speak roughly to your little boy'?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mind. *Social Development*, 8(2), 143-160.
- Hughes, C., & Ensor, R. (2007). Executive function and theory of mind: Predictive relations from ages 2 to 4.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47-1459.
- Hughes, C., & Ensor, R. (2009). Independence and interplay between maternal and child risk factors for preschool problem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4), 312-322.
- Jenkins, J. M., & Astington, J. W. (2000). Theory of mind and social behavior: Causal models tested i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6(2), 203-220.
- Konishi, H., Froyen, L. C., Skibbe, L. E., & Bowles, R. P. (2018). Family context and children's early literacy skills: The role of marriage qualit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mothers and fath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2, 183-192.
- Korucu, I., Selcuk, B., & Harma, M. (2017). Self-regulation: Relations with theory of mind and social behaviour.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6(3), 1-23.
- LaBounty, J., Wellman, H. M., Olson, S., Lagattuta, K., & Liu, D. (2008). Mothers' and fathers' use of internal state talk with their young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7(4), 757-775.
- Lagacé-Séguin, D. G., & Coplan, R. J. (2005). Maternal emotional styl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Assessment, correlates, outcomes and goodness of fit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4(4), 613-636.
- Lane, J. D., Wellman, H. M., Olson, S. L., Miller, A. L., Wang, L., & Tadif, T. (2013).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theory of mi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i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preschoolers' false-belief understanding.

-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25-836.
- Mazzone, S., & Nader-Grosbois, N. (2016). How are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emotions related to their theory of mind abilities?. *Psychology*, 7(2), 166-179.
- Mink, D., Henning, A., & Aschersleben, G. (2014). Infant shy temperament predicts preschoolers theory of min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7(1), 66-75.
- Ontai, L. L., & Thompson, R. A. (2008). Attachment, parent-child discourse and theory-of-mind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7(1), 47-60.
- Pears, K. C., & Moses, L. J. (2003). Demographics, parenting and theory of mind in preschool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2(1), 1-20.
-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 (1987). Three-year-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2), 125-137.
- Perner, J., & Wimmer, H. (1985). "John thinks that Mary thinks that..." attribution of second-order beliefs by 5-to 10-year-old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9(3), 437-471.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5th ed, pp. 105-17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Ruffman, T., Perner, J., & Parkin, L. (1999). How parenting style affects false belief understanding. *Social Development*, 8(3), 395-411.
- Saarni, C. (198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 *Th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1-31.
- Seçer, Z., & Karabulut, N. (2016). Analysis of emotional socialization behaviors of mother-fathers and social skills of preschool children. *Education and Science*, 41(185), 147-165.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Meta-analysis of theory-of-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3), 655-684.
- Wellman, H. M., Lane, J. D., LaBounty, J., & Olson, S. L. (2011). Observant, nonaggressive temperament predicts theory-of-mind development. *Developmental Science*, 14(2), 319-326.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1), 103-128.
-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on the Child's Theory of Mind

Kim, Min Ji

Kim, Sun 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on the child's theory of mind. A total of 173 children at the ages of 4, 5, and 6 were enrolled in theory of mind tasks and their par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For data analysis, we used frequency, Cronbach's α , One-way ANOVA, the Scheffé test,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ldren's shyness and aggression were correlated with the theory of mind.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other's and father'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 and the theory of mind. Third,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al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influencing the child's theory of mind were revealed by the child's shyness, mo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emotional responses, and emotional guidance. Fourth, father'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emotional responses influenced the child's theory of mind. These results could be used to establish and practice parent's strategies for raising the level of the child theory of mind.

Keywords: child temperament, 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theory of mind